

## 남도의병역사박물관, '불원복 태극기' 전시한다

지리산 일대 항일투쟁시 고광순 의병장이 만들어 사용한 독립기념관 보관 유물... 소장자 설득해 기탁받아

전라남도는 1986년부터 40년간 전남 안 독립기념관에 보관됐던 고광순 의병장의 '불원복(不遠復) 태극기'가 소장자의 뜻에 따라 25일 남도의병역사박물관에 기탁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항일 의병의 분향인 남도로 태극기가 돌아오도록 전남도가 소장자와 꾸준히 소통하며 박물관 건립 취지를 알리고 기탁을 설득한 끝에 겨운 결실이다. 제107주년 3·1절과 3월 5일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가장 상징적인 의병의 문화유산이 돌아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08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원복 태극기'는 고광순 의병장이 지리산 일대에서 항일 투쟁을 벌일 당

시 직접 만들어 사용한 태극기다. 태극 문양 위에 붉은 글씨로 머지않아 국권을 회복한다는 '不遠復'이란 글귀를 뚜렷하게 수놓았다.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남도 사람들의 강렬한 구국 충혼이 고스란히 담겼다. 고광순 의병장은 임진왜란 당시 활약한 고경명 의병장의 후손으로, 1907년 지리산 연곡사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혈전을 벌이다 순국한 대한제국기의 대표적 호국 영웅이다. 전남도는 4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불원복 태극기를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의 핵심 유물로 삼고 이를 활용한 다채로운 문화상품(뮤지엄 굿즈)을 개발해 도민이 일상에서도 남도의 의로운 역사를 친숙하게 접하고



기억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중환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준비단장은 "불원복 태극기의 귀향은 도민에게 의향 남도의 긍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계기"라며 "박물관이 의병 정신을 계승하고 도민이 널리 참여하는 '의' 교육의 허브

/김명수 기자

## 광양시립도서관, 소상공인 대상 '책 읽는 가게' 운영 지역 소상공인 일터로 찾아가는 맞춤형 책 배달 서비스 추진

광양시립도서관은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 '책 읽는 가게' 사업을 운영한다. '책 읽는 가게'는 지역 내 카페·서점·미용실 등 2인 이하 소규모 상점 운영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을 위해 도서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도서를 배달하는 서비스로, 2016년부터 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광양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80개소를 모집한다. ▲중마도서관(중마동·골약동) ▲광영도서관(광영동·옥곡면·진월면) ▲금호도서관(금호동·태인동·진산면·다압면)이 각각 20개소씩 모집할 예정이며, 선정된 가게가 매일 도서 10권을 선택해 대출하면 지정된 요일에 직접 전달한다. 다만, 먼 지역은 택배로 발송한다. 올해 사업은 12월까지 운영한다. 참여



가게는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모집 정원 총원 수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신청은 해당 도서관 전화 또는 모바일 앱 'MY광양'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호도서관(☎061-797-384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책 읽는 가게는 도서관이 지역 곳곳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생활 밀착형 독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책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신선호 기자

## 담양군, '청년 문화예술패스' 본격 추진

공연·전시·영화 관람비 1인당 20만 원 지원

담양군이 청년 세대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문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2006~2007년 출생 청년을 대상으로 예술 분야 공연·전시·영화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70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원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2회에 걸쳐 신청을 받으며, 1차 신청 기간은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신청 기간은 8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단, 1차 신청 후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아 회수된 이용자는 2차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 문화예

술패스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되며, 자격 검증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화예술 포인트가 지급된다. 지급된 포인트는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씨지브이(CGV) 등 영화관과 놀이뉴스(NOL)·에스이십사(YES24)·멜론 티켓·티켓링크 등 협력 업체를 통해 공연·전시·영화 티켓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담양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0일에는 지방비 위탁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2월 25일부터 1차 패스 발급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양/이종욱 기자

/전혜정 기자

"박완서 작가 시리즈와 설록 홈즈 등 다양한 전집을 한달 동안 통째로 빌려 드립니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관내 주민들의 독서 기회 확대와 가정 내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 '월간 서재 이달의 전집 대출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월간 서재 이달의 전집 대출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사업으로, 관내 구립도서관에서 보유 중인 전집 도서를 한달간 빌려보는 독서진흥 프로그램이다. 문화정보 도서관과 푸른길 도서관, 청소년 도서관, 효천어울림 도서관까지 구립도서관 4곳에서 각각 선정된 다양한 주제의 전집을 세트로 대출해 장기간 깊이 있

## 광주 남구, 박완서·설록 홈즈 등 전집 한달간 통째로 '월간 서재 이달의 전집 대출 서비스' 본격 실시

는 독서를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각 구립도서관에서는 소장 중인 예술과 경제, 창작동화, 역사, 인문·사회, SF 모음집, 영어, 스텔러 등 다양한 분야의 전집을 6개씩 엄선해 체계적인 독서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성인과 가족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구립도서관별로 매월 선착순 공개 모집을 진행한 뒤 성인 3명과 가족 3명을 선정하며, 구립도서관 4곳에서 매월 선발하

는 전체 인원은 성인 12명과 가족 12명이다. 월간 서재 이달의 전집 대출 서비스 신청은 매월 마지막 주 남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lib.namgu.gwangju.kr) 문화 프로그램 코너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주민과 가족은 매월 첫째주 해당 구립도서관을 방문해 전집을 받을 수 있으며, 전집 반납은 수령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 대출 정지 회원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수령 기간 내에 전집을 수령

하지 않으면 신청 도서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또 대출 연장 및 동일 전집 재대출은 불가하며, 상호 대차 및 타 도서관 반납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도서관에 반납해야 한다. 남구 관계자는 "전집은 비용 부담이나 보관 공간 문제로 개인이 소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관내 주민들이 다양한 분야의 양질 도서를 충분히 접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월별 전집 목록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남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혜정 기자

영암군 삼호도서관이 '2026년 상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 수강생을 4일부터 모집한다. 지역민의 독서 확산, 평생학습 활성화 등을 위한 이 프로그램은, 삼호도서관의 사전 이용자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관심 분야, 학습 요구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3/16~7/2일 어린이와 성인으로 나뉘 총 7개 과정으로 운영되고 영암군민 누구나 삼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

## 영암 삼호도서관, 어린이·성인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4일부터 신청, 3/16~7/2일 쿠킹클래스, 토탈공예 등 총 7개 과정 열려 신청 가능하다. 먼저, 어린이 프로그램은 독서 기반 사고려 확장에 초점을 뒀다. '그림책으로 키우는 문해력 놀이터'는 그림책으로 다양한 어휘와 표현의 맥락을 이해하고, 생각을 확장하는 활동 중심 수

업으로, 임기를 넘어 사고력과 표현력을 함께 기를 수 있다. '쿠킹클래스'는 독서와 체험을 결합한 창의 프로그램으로 책 속 이야기로 참여 어린이들이 소통하며 다양한 쿠키를 만들어 보는 재미 있는 과정이다.

야간 프로그램인 '어린이 과학실험실'은 과학 전 영역을 아우르는 실험 중심 수업으로, 탐구·실험 과정에서 융합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진행된다. 성인 프로그램은 취미·예술·디지털 역량을 제고하는 실용 중심 과정으로 구성됐다. '토탈공예'와 '전통채색화'는 감성 치유와 자기표현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 강좌이고, 'AI와 함께하는 디지털시민학교'

는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이해력과 정보 활용 능력을 높이는 정보화 교육이다. '그림책큐레이션 지도사 과정'은 독서 문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획돼, 수강생들이 지역 독서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비용 영암군 인재육성체육과장은 "도서관을 세대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지역의 중심 공간으로 가꾸겠다.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어린이와 어른의 많은 관심과 참

여 바란다"고 말했다. 각 프로그램 접수 일정과 세부 운영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자세한 안내는 삼호도서관(470-6826, 6831)에서 한다. 영암/김희선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보디나인 농어촌

**농**

지가 있다면

**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어**

금이 있습니다

**기**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